

봄바람 타고 나주로 '미식여행' 떠나자

시, 2회차 이벤트 진행... '나주밥상' 인지도 확산 주력 나주물 포인트 혜택 강화... '명함형 안내 카드' 도입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 대표 음식 브랜드인 '나주밥상'을 앞세운 세계적 미식 이벤트 '맛으로 잇는 나주, '맛잇나'의 2회차(봄)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이벤트는 나주시가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관리하는 '나주밥상' 브랜드 업소의 우수한 맛과 친절한 서비스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미식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개관한 '남도지방역사박물관'을 명소에 추가하고 참여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오는 5월 31일까지 2회차 이벤트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나주의 미식 정체성인 '나주밥상'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 모바일 QR 접속이 필수인 점을 고려해, 기존에 고정된 포스터 형태 홍보물이 가진 휴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지갑 속에 쏙 넣어 꺼내 볼 수 있는 '명함형 안내 카드'를 전격 도입했다.

나주밥상 지정업소 44개소와 주요 관광지에서 비치되는 이 카드는 관광객들이 나주의 맛을 즐기는 현장에서 즉시 스캔을 통해 스마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지난 1회차 운영 결과 경품 선택지 중 '나주물 포인트'에 대한 선호도가 예상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이번 2회차에서도 포인트 혜택을 적극 홍보해 나주물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요” 광양시는 최근 홈플러스 광양점 문화센터에서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의 일환인 조리실습을 운영했다. 이번 조리실습은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제공하는 보충식품을 활용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칼질 요령 등 기본적인 조리 기술과 위생적인 재료 손질 방법, 조리 과정에서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며 직접 조리 과정에 참여했다.

순천만 봄철 도요물떼새 도래 확인 '20년 복원 성과' 총 46종...철새 중간기착지 입증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갯벌과 복원 습지 일원에서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 등 봄철 이동성 도요물떼새가 잇따라 관찰되면서, 순천만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요물떼새는 매년 봄과 가을,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며 수천km 이상 이동하는 대표적인 철새로, 이동 과정에서 충분한 먹이와 안정적인 휴식 공간을 갖춘 습지만을 중간 기착지로 선택한다.

순천만은 이들의 주요 먹이인 갯지렁이, 조개류 등 저서생물이 풍부하고 해군 전역으로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모범 사례 발표를 통해 담양의 물 관리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도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순천만에서 확인된 도요물떼새류는 총 46종으로, 이는 국내 기록된 63종의 약 73%에 해당한다.

특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취약종(VU)으로 지정된 큰뒷부리도요는 알래스카에서 번식 후 우리나라를 거쳐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국제적 보호종으로 해당 종의 관찰은 서식지의 생태적 안정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종이다.

해남, 에너지 절약 '나부터 해봄' 캠페인 중동전쟁 위기 극복 군민 참여·지속가능 실천문화 확산

해남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지속가능발전(SDGs)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해남, 함께 해-봄'군민 실천 캠페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안착한 '해남형 ESG'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SDGs) 실천 문화를 군민 일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첫 출발인 1단계 '나부터 해봄!' 캠페인은 5월까지 진행된다.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주제로 출근길 걷기, 계단 이용하기,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경기침체의 우려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담양, 노후 상수도 정비 '전국 최우수 모델'

연간 145만 누수 차단...예산 30억 절감 성과

담양군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며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설명회에서 군은 담양읍과 창평면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279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정비사업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2027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도 신청한 상태다.

해당 사업이 선정될 경우 용연·용흥, 무정, 고서 등 미정비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군 전역으로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광, 공공심야약국 '효응' 2개소 두 달 간 320건 이용

영광군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야간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건강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월 군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해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런 설명회에서 군은 담양읍과 창평면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279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정비사업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12월 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운영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약사가 상주하는 심야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사업을 통해 구역별 배수 체계를 구축하고, 관망 관리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실시간 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과학적인 수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수압을 측정하고, 야간 최소 유량 분석을 통해 누수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이후 3월 말까지 누적 이용건수 320건, 하루 평균 이용자 5~6명으로 집계되며 야간 의약서비스에 대한 군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비사업 효과로 담양군은 연간 약 145만 건의 누수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생산 원가 기준으로 연간 약 3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경증 질환이 대부분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의약품을 신속히 구입할 수 있어 군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전체 이용자 중 60대 이상 노인 등의료취약계층 비율이 약 20%를 차지, 야간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jg98@gwangnam.co.kr



진도군 축구동호회는 최근 부천시를 방문해 축구동호회 간 친선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식이 진행됐다. 사진제공=진도군청

진도군-부천시, 축구동호회 친선 교류로 '상생'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상호 기부...진도 특산물 홍보 병행

진도군과 부천시가 자매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축구동호회 친선 교류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상호 기부하며, 양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12월 군에 따르면 진도군 축구동호회는 최근 부천시를 방문해 축구동호회 간 친선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현장에 진행해 진도군의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